

특별좌담

통일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의 전망

일 시: 2000년 6월 19일(일) 14:30~16:30

장 소: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머큐리룸

참석자:

베른하르트 포겔 (독일 튀링엔주 지사)

김세균(정치학 · 서울대)

김용민(독문학 · 연세대)

남구현(사회복지학 · 한신대)

이해영(국제관계학 · 한신대)

정현백(사학 · 성균관대)

최종고(법학 · 서울대)

사 회: 안삼환(독문학 · 서울대 독일학연구소장)

안삼환 베른하르트 포겔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주로 독일 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 한국학자들로서 베른하르트 포겔 박사께서 마인츠와 본에서 독일 기민당(CDU)의 지도적 정치가로 활동하실 때부터 매스컴을 통해 박사님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박사님께서서는 독일이 통일된 직후, 구동독 지역인 튀링엔주로 건너가셔서 지금까지 8년여 동안 튀링엔주 지사로 일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서는 통일도 어렵지만 그 후 속조치는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통독과정의 산 증인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지사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 한국에

오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군요.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불과 며칠 전, 즉 지난 6월 15일에, 이곳 한반도에서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른하르트 포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은 지금 독일에서도 매우 큰 주목의 대상입니다. 유럽과 독일의 신문, 방송, 잡지들 치고 이번 한반도의 이 크나큰 이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매체는 없었습니다. 모두들 머리기사로 정상회담을 보도했는데, 이는 이번의 남북정상의 만남에 대해 유럽의 매체들이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이 나라를 방문한 첫 유럽 정치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나라가 분단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아는 구동독지역의 주의 지사로서 나는 이 회담이 큰 성과를 거둔 데 대해, 그리고 긴 통일 장정을 가시적인 거리로 앞당긴 데 대해 우선 한국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 교수님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싶은데, 두 정상의 이번 만남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현백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남한 국민들은 갑자기 붙어닥친 엄청난 정치적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 듯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하는 것은 엄하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남한의 정치인들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주구'이며 '앞잡이'라고만 알고 있던 북한 주민들은 그 당혹스러운 정도가 더욱 더 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남한언론의 보도 태도에도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찬성이나 찬양기사만 나왔지 비판적인 시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정상회담을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정상회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특히 이번 회담의 막후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고 저도 한국인으로서 이번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해 일단 감동하

고 큰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어쩌면 독일에서보다 한꺼번에 더 많은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독일과의 차이점인 듯 보이기도 하며, 또한 이것이 걱정스러운 면이기도 합니다. 법률가로서 본다면 북한은 아직 법전(Gesetzbuch)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북한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냉정하게 법률적으로 사고하고 매사를 문서화(dokumentieren)하는 독일국민의 행동양식을 진정으로 배워야 할 때는 바로 지금부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일의 친구들과 방문자들은 한국은 독일과 사정이 다르므로 독일로부터 배우라는 충고를 해 줄 수 없다는 솔직한 발언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사실 이제부터는 독일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통일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실 사안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구현 법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입니다만, 모두가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를테면,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김대통령조차도 스스로 실증법을 위반한 꼴이 됩니다. 우선 국내법부터 시급히 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의 정상들이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문제는 남북 각 지역에서의 실질적 삶이 개선되고 사회 제 분야에서 민주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남북 국민들의 정치적 기대감이나 일시적 민족감정보다 앞으로는 사회경제적 협력의 구체적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베른하르트 포겔 독일에서도 통일을 전후한 긴박한 상황 하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정치가들이 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해영 그런 초법적 행위를 하는 중에 당시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도 많은 실수를 하게 되었지요. 통일이 “지하실에 시체를 숨겨놓은” 격이라는 비난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베른하르트 포겔 실수들 중 예를 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드시겠습니까?

이해영 통일 직전의 화폐통합이 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너무 서두르고 성급하게 시행함으로써 동독기업의 급격한 몰락과 동·서독 주민의 빈부 격차를 고착화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구동독 지역에서의 대량실업 사태도 정책실패의 결과가 아닐까요?

베른하르트 포겔 그런 비판이 없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아무도 당시의 정책을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통일과정을 자세히 회상해보면, 애초에 당시 콜총리가 제안한 통일방안은 동·서독이 국가연맹(Konföderation) 체제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역사적 흐름은 소위 흡수통일 쪽으로 귀착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서도 통일방안의 구체적 모습은 주변 4대 강국이나 외국이 아닌 당사국들, 즉 남·북한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독일에서도 통일 후에 갖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일 이전보다는 월등히 낮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이를테면 옛 동독에서는 강에 아예 물고기들이 노니질 않았기 때문에 조용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구동독의 각 지역에서는 강에서 물고기가 죽어간다는 아우성이 높단 말씀이지요.

김용민 아무튼 우리 한국국민은 독일로부터 많은 것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 이전에 오랜 기간에 걸쳐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해 온 것을 감안한다면, 한반도에서 당장 통일이 실현되리라는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독일의 경우 동·서독의 첫 정상회담이 열린지 거의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통일과정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의 만남으로 바로 눈앞에 통일의 시점이 다가오기라도 한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통일과정에 들어선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독일과의 차이는 우리 국민들의 열정적인 반응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칫하면 부정적 결과를 낳거나 지난한 통일과정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성적 성찰과 병행할 경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열기를 착실한 준비와

성파로 이어간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어쩌면 독일보다는 짧은 기간 안에 달성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베른하르트 포겔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은 통일 이전의 분단상태로 볼 때,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첫째, 독일 땅에서의 <철의 장막>은 틈새가 아주 많은 장벽이었습니다. 우선, 베를린이라는 정치적 <통풍구>가 존재하였고, 동·서독 간에는 상호 우편교환, 방송청취,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즉, 통일 직전의 동독인들의 서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던 말씀입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북한인들이 남한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둘째,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낙차가 제법 컸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동독국민들이 지금 북한 주민들처럼 굶주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디. 셋째, 동·서독 국민들은 서로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지는 않았습니디. 독일의 분단은 근원적으로 패전의 산물이었던 데에 반하여 한반도의 분단은 패전한 일본 대신에 다른 민족, 즉 한국민이 국토 분단이라는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위점들 때문에, 우리들 독일인들은 한국인 여러분에게 좋은 충고를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한국인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우리들의 경험을 진솔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한국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은 방법을 모색해 나가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주변 4대 강국들은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현백 미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는 우선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각기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은 자국의 이해를 내세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괄목할 만한 사실은 중국이 매우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런 징후가 조금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해영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은 결국 정치적 <현상유지>를 원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한반도를 갈라놓은 채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야 하나까요.

안심환 그런 면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이런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초연하다고 볼 수 있는 독일과 독일인들의 도움이 많이 기대됩니다.

베른하르트 포겔 우리 독일도 도와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히 북한 경제를 돕는 데에는 핵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김세균 북한의 핵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닐까요? 소규모의 우라늄 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일 텐데, 위기에 몰린 북한이 현재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협상 무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정현백 김교수님의 질문에 덧붙여 한 가지 더 여쭙보겠습니다. 독일이 여러 차원에서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무슨 대북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베른하르트 포겔 최근 독일에서는 에너지정책을 완전히 수정하여 오는 2021년부터는 아예 원자핵발전까지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핵 남용국가를 원조하는 것은 독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이 점만은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안심환 핵문제는 아직은 더 시간을 두고 해결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통일에는 독일의 교훈이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위 <과거 극복>의 과정에서 독일인들이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인간적인 미래세계에의 꿈이 한반도를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주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포겔 지사님의 이번 한국 방문이 이런 의미에서 더욱 뜻깊은 일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베른하르트 포겔 잠깐, 잠깐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수님, 안

교수께서 저를 위해 이 모임을 주선해 주시는 과정에서 교수님의 괴테번역가로서의 이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튀링엔주 정부의 직원들이 알아낸 사실입니다만, 안교수께서는 작년, 즉 1999년에, 괴테 탄생 250주년 기념제의 일환으로 우리 튀링엔주의 수도 에어푸르트에서 열린 괴테번역자 회의에 참가하셨지요? 그 당시 괴테의 발자취를 따라 바이마르 근교 일메나우 시에 있는 키헬한 산을 순례하시던 중, 괴테의 자연시 <나그네의 밤노래 Wanderers Nachtlied>를 한국어로 번역·낭송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한국어 번역시가 세계 각국어의 다른 번역들과 나란히 실린 책이 최근에 우리 튀링엔주정부 산하의 일메나우시청에서 발간되어 나왔기에 여기에 한권 구해 갖고 왔습니다. 우리 튀링엔주의 선물이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현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키헬한 산상에서의 괴테 시 낭송회에 참가했다가 귀국 후 일메나우시청의 요청에 의하여 그 한글 번역원고를 보내준 적은 있습니다만, 그 시가 독일 책*에 실리게 되리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사님, 뜻밖의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Das Goethejahr 1999 in Ilmenau. Eine Dokumentation, hrsg. vom Vorbereitungskomitee *Goethestadt Ilmenau 1999*, Ilmenau 2000, S. 105.

Zusammenfassung

**Mehr Hindernisse als im Deutschland vor der
Wiedervereinigung**

- ein Gespräch mit Herrn Ministerpräsidenten Bernhard Vogel

“Das Gipfeltreffen ist ein Ereignis, das den Weg zur Wiedervereinigung als ‘begehbare Strecke’ sichtbar gemacht hat. Aber auf diesem Wege ist mit mehr nicht sofort sichtbaren Hindernissen zu rechnen als im damaligen Deutschland. Diese Hindernisse dürfen nicht ignoriert werden. Es ist also nicht ratsam, aus dem deutschen Modell einfache übertragbare Lehren ziehen zu wollen,” sagte der Ministerspräsident des Freistaats Thüringen, Dr. Bernhard Vogel, der am 19. Juni hier in Seoul eintraf, in einem Gespräch mit koreanischen Wissenschaftlern, das zum Thema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und Koreas geführt wurde. Das Gespräch wurde geleitet von Herrn Prof. Dr. Sam-Huan Ahn, Leiter des Instituts für Deutschlandforschung der Nationaluniversität Seoul, im Mercury-Room des Hotel Intercontinental. An dem Gespräch, wo fundiert und ernsthaft diskutiert wurde, wie die beiden verschiedenen System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in eine Nation integriert werden können, nahmen Herr Prof. Dr. Chong-Ko Choi(Juris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r Prof. Dr. Se-Kyun Kim(Politologe, SNU), Herr Prof. Dr. Hae-Young Lee(Politologe, Hanshin Univ.), Frau Prof. Dr. Hyunback Chung(Historikerin, Sungkyunkwan Univ.), Herr Prof. Dr. Ku-Hyun Nam(Soziologe, Hanshin Univ.) und Herr Prof. Dr. Yong-Min Kim(Literaturwissenschaftler, Yonsei Univ.) teil.

Im Vergleich mit deutschen historischen Verhältnissen wies Herr Vogel aus seiner Sicht auf folgende Probleme Koreas in diesem Prozess hin: 1) die Verslossenheit der nordkoreanischen Gesellschaft, 2) das steile wirtschaftliche Gefälle zwischen Nord- und Südkorea, 3) Erfahrungen des blutigen Bröderkriegs zwischen Nord- und Südkorea. In Deutschland habe es wenigstens Berlin gegeben als eine Art 'Ventilator' für Ostdeutsche. Darüberhinaus war in der ehemaligen DDR ein freier Postverkehr garantiert, man konnte westliche Radiosender hören und Programme des bundesdeutschen Fernsehens empfangen. Die Unwissenheit der nordkoreanischen Bevölkerung über den Süden müsse wohl als Haupthindernis der 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 angesehen werden.

Die Wirtschaft der DDR sei zwar marode gewesen. Aber Hungernöte etc. wie im jetzigen Nordkorea habe es da niemals gegeben. Zudem werde die Erfahrung des Krieges den Prozess der 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 wohl langwierig machen. Auf die juristische Frage, ob die südkoreanischen Politiker gesetzkonform gehandelt hätten, wies Dr. Vogel auf die westdeutschen Politiker hin, die zum Teil auch illegitime Handlungen in Kauf nehmen mußten. Das war manchmal in diesem Prozess notwendig, meinte der Ministerpräsident.

Auf die Frage, ob auch im Prozess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nicht viele Fehler begangen worden seien, erklärte der Minister, damals habe es einige Kritik gegeben, z. B. über die Währungsunion, aber heute gibt es nur wenige, die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für zu rasch vollzogen bewerten.

Herr Vogel, der seit langem im Westen als führender CDU-Politiker galt, war als Ministerpräsident des Landes Rheinland-Pfalz und als Vorsitzender des Verwaltungsrates des

ZDF tätig gewesen. Seit 1992 ist er als Ministerpräsident des neuen Landes Thüringen tätig, und seit 1985 zudem Vizepräsident der EDU.